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 화폐개혁 이후를 중심으로 -

2011. 3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 화폐개혁 이후를 중심으로 -

2011. 3

임순희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이교덕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목 차

I. 문제 제기	1
II. 북한주민 의식 변화의 전반적 특징	3
1. 자본주의 체득 및 수용	3
2. 체제 자긍심과 최고지도자에 대한 신뢰 약화	4
3. 남한사회·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6
4. 중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개방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증대	7
5. 돈·물질 우선의 가치의식	8
III. 화폐개혁 조치 이후 북한주민 의식변화의 특징적 추세	10
1. 당·국가에 대한 원망과 불신 고조	10
2.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반감 확산, 심화	13
3. 개방에 대한 기대 및 요구 확산	15
IV.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16

I. 문제 제기

- 1990년대 이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지속됨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 의식 변화가 확산, 심화되어 가고 있음.
-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는 경제난과 1980년대 말 이래 점차 확대되어 온 외부사조·문물의 침투가 주요 원인이며, 식량 구입을 위한 주민 이동의 급증과 장마당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보다 가속화됨.
 - 주민 이동 급증과 장마당 활성화에 따른 주민 상호간 정보 교환 및 유통의 증대
 -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한 남한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의 방북에 따른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 및 의식 변화
- 경제난으로 인한 생활고가 다른 지역들보다 더 심했던 함경도, 자강도, 양강도 등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주민의 식 변화가 최근 들어서는 평양을 비롯한 내륙지역 곳곳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 이러한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에 있어 중대한 계기를 이룬 것은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개혁 조치이며, 이후 주민의식 변화는 단편적·돌발적이기는 하나 소규모 주민들의 집단 반발 및 저항 등의 형태로 표출되기에 이룸.
- 화폐개혁 조치 이후 주민들의 돌발적인 ‘생계형 시위’가 빈발, 확산됨에 따라 보안당국의 주민 통제가 크게 강화됨.
 - 장마당에 보안원 증원 배치 및 보위부원 배치

- 함경도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 전화 차단 및 전기 공급 중단
 - 대학에 보위지도원 증원 배치 등
- 화폐개혁 조치 이후 식량난 등 경제난이 보다 심화, 지속되어 최근에는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식량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있는 바,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도 보다 더 적극적인 형태로 표출될 것이며, 이는 사회불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튀니지 등 중동과 아프리카지역 장기집권 독재국가들에서의 반정부 시위 관련 소식이 주민들에게 유입, 확산되는 경우에는 체제동요, 장기적으로는 반정부 소요 등 보다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음.
- 중동과 아프리카지역에서의 반정부 시위 관련 소식이 주민들에게 유입되는 것을 우려하여 북한당국의 주민 단속 및 감시 강화
 - 지난 1월부터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휴대전화 대여 중단¹⁾
-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이 보고서에서는 2009년 11월의 화폐개혁 조치 이후를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의식변화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사회 구성원의 의식변화가 사회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동인이라고 할 때,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는 북한사회 실태 파악 및 대북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1) 『뉴데일리』, 2011. 2. 23.

II. 북한주민 의식 변화의 전반적 특징

- 북한주민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의식변화는 자본주의 체득 및 수용, 체제자긍심 및 지도자에 대한 신뢰 약화, 남한사회·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중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개방 요구, 가치의식 변화 등으로 집약할 수 있음.

1. 자본주의 체득 및 수용

- 북한당국은 사상교양·교육을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착취계급 등과 연관된 해악으로 인식되도록 하였음.
- 그러나 경제난이 지속됨에 따라 국가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장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해오면서 북한주민들은 자본주의 경제를 자연스럽게 체득, 수용하게 됨.
 -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비롯한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을 해나감에 따라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감 완화
 -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개인 상행위의 공식화 및 영역 확대에 따라 자본주의 상품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변화
- 또한 1980년대 말부터 북·중 접경지역으로부터 빠르게 확산되어 온 이른바 자본주의 ‘황색바람’은 북한주민들 사이에 사상적 이완과 가치관 변화를 초래함.
 - 북한주민들은 남한 라디오 방송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 중국 텔

레비전 시청, 중국거주 친척·친지 등을 통해 자본주의 문화 관련 소식 및 정보를 접하며, 특히 불법 영상녹화물(비디오테이프·CD 등)을 구입하여 시청

- 대체적으로 개성, 황해남북도, 강원도 등지의 일부 주민들은 한국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하고, 평양에서도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에 사는 한국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함.²⁾
 - 한국의 텔레비전은 NTSC 방식, 북한은 PAL 방식이라 시청이 불가능했으나 중국에서 NTSC-PAL 겸용 TV가 다량 보급되어 시청하는 주민들이 증가
 - 일부 주민들은 한국 드라마 등을 녹화, 복사하여 다른 주민들에게 재판매하고 있으며 정전이 돼도 차량 배터리를 이용해서 TV를 볼 수 있는 소형 액정TV(12·14인치)가 인기

2. 체제 자긍심과 최고지도자에 대한 신뢰 약화

- 북한당국이 일상적인 사상교양을 통해 체제에 대한 자긍심을 주입한 결과, 북한주민들은 사회주의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만족해하는 편이었으며 최고지도자 김정일의 권위를 인정하는 등 체제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음.
- 그러나 식량난 등 경제난으로 인해 식량배급제, 무상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 등 사회주의제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데 대해 주민

2) 하태경, “북한주민 한국 TV 방송 시청 현황과 확산 방안,” 국가인권위원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2회 북한인권 개선 공청회: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증진방안』 (국가인권위원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1. 2. 23), p. 55.

들의 불만이 커지고 최고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 심화되는 등 북한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자긍심이 크게 약화됨.

- 사회주의제도가 기능을 못함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 사상적 이완과 함께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일탈 및 비사회주의적 행위 증가
-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기대가 좌절됨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 내지 저항의식이 형성, 강화

○ 특히 경제난의 악화, 지속으로 주민들의 생활고와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등 사회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 김정일에 대한 원망과 반감이 증대, 확산되어 가고 있음.

- 김정일은 아버지의 후광으로 최고 권력자가 되어 가계우상화에 집착하는 인물이고 ‘인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무책임한 지도자이며 나라 살림을 잘 못해 경제난을 해소하지 못하는 통치자로 인식
- 김정일은 군사부문에만 치중하고 ‘인민’들은 먹여 살리지 못하며 고생도 전혀 안 해보고 아버지의 업적도 다 말아먹은 사람이라고 인식

○ 그러나 북한주민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김정일을 거명하며 비난하기보다는 남한과 미국의 경제봉쇄, 간부들의 부정·부패와 비리 등을 탓하며 우회적으로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반감을 드러냄.

3. 남한사회·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 북한당국은 사상교양 및 잡지, 신문 등의 간행물을 통해 남한 실상을 왜곡, 비난하며, 이로써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 및 의식은 부정적으로 형성됨.
 - 북한당국은 남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민족공조의 통일전술 논리로 합리화” 시키고 남한이 “장군님의 호통”에 굴복하여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민들을 교양

- 그러나 1980년대 말 이래 북한주민들 사이에 남한 관련 녹화물 시청, 남한 상품과 지원품 목격 및 사용 등을 통해 남한 사회·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당국이 단속 및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북한주민들의 대남인식·의식 변화에 있어 주요 계기를 이룬 것은 식량난 이후 빈도가 높아진 합법적·불법적 중국 왕래와 남북경협 및 인적교류 등
 -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남한 라디오방송, ‘미국의 소리방송’(VOA), ‘자유아시아방송’(FRA) 등을 몰래 듣거나 대북전단(삐라)을 통해 대남 인식이 변화

- 최근 평양과 평안남·북도, 황해도, 동해안의 함흥, 청진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남한의 텔레비전 공중파 방송이 수신되면서 북한주민들이 몰래 한국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음.³⁾
 - 위성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는 남한 드라마가 방영 다음 날 CD로 복사돼 북한 내부로 유통

3) 『NK 지식인연대』, 2010. 12. 6.

4. 중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개방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증대

- 중국 왕래 및 텔레비전 시청률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변화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달라진 중국의 모습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체제 개방의 의의 및 필요성을 인식케 함.
 - 식량난 등 경제난이 지속됨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합법적·불법적 중국 왕래 횟수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북·중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대부분은 중국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
 - 북한주민들은 중국 드라마·영화를 보면서 개혁·개방의 현실을 확인하며 북한도 개혁·개방해야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됨.⁴⁾

- 북한주민들은 중국이 북한보다 잘 사는 나라이고 주민 생활용품의 상당부분을 중국제품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개방을 해서 경제발전을 이룬 모범사례로 인식하고 있음.
 - 개혁·개방 및 경제부문에서의 자본주의 도입으로 크게 성장한 중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체제개방에 대한 관심 및 요구 증대

- 그러나 중국에 대한 북한주민의 감정 내지 인식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임.
 - 북한주민들은 중국의 대북투자가 북한의 자원획득 위주로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지하자원을 수탈해 가는 것으로 인식

4) 김영호(북한이탈주민), “북한주민의 외부 영화 및 드라마 시청 실태: 증언,” 국가인권위원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앞의 글, p. 4.

- 자원 획득을 노린 중국의 대북경협 확대는 북한지도부에만 득이 될 뿐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여 부정적으로 인식⁵⁾
- 2010년 김정일 위원장이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북식량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은 데 대해 크게 불만⁶⁾

○ 또한 북한주민들은 중국의 대북지원 사실을 잘 알고는 있으나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지원 역시 “장군님의 위대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마워하지 않으며, 특히 주민들 사이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불량제품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음.⁷⁾

- “중국이 조선에 내보내는 물건은 나쁜 것이고, 조선에 내보내는 쌀도 다 오래된 것이거나 자기네가 팔다 못 판 것이며, 시계도 낡은 것을 내보낸다.”
- 중국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것일 뿐, 주민들을 생각해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5. 돈·물질 우선의 가치의식

○ 1980년대 말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북한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는 1990년대 이래 식량난 등 경제난을 겪으면서 확산, 심화되었으며 부분적·제한적 체제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가속화됨.

5) 『NK 지식인연대』, 2011. 1. 7.

6) 위의 글.

7) 북한민주화운동본부, 『화폐개혁 이후 1년: 북한주민인터뷰』 (북한민주화운동본부, 2010), p. 114, p. 133.

- 경제난 이래 북한주민들의 가치의식은 정치·사상을 우선으로 하는 집단중심의 사회지향적인 것으로부터 돈·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자아중심의 개인지향적인 것으로 변화함.
- 2002년의 ‘7.1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자아중심의 개인지향적인 가치의식이 보다 더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국가에 기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자아 의존적 의식이 강화됨.

Ⅲ. 화폐개혁 조치 이후 북한주민 의식변화의 특징적 추세

- 199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는 화폐개혁 이후 보다 심화, 가속화되는 추세임.
 - 특히 화폐개혁 조치 이후에도 증가세를 나타낸 합법·불법 중국 왕래 북한주민들을 통해 주민들 사이에 의식 변화가 확산

1. 당·국가에 대한 원망과 불신 고조

- 화폐개혁 조치 이후 주민 생활이 보다 더 악화됨에 따라 당과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매우 높아짐.
 -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적 시혜가 줄어들고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면서 북한주민들 사이에 당·국가와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자긍심이 약화되었으며 ‘인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확산
 - 화폐개혁 이후 계속되는 물가 폭등과 만성적 식량부족, 시장폐쇄 조치 등으로 인해 국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크게 고조⁸⁾
- 특히 북한주민들은 “돈이 없는” 국가가 ‘인민’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끌어내기 위해 화폐개혁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써 국가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 보다 높아짐.⁹⁾
 - 빈곤층 주민들은 국가가 잘 사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평등을 구현하려는 의도에서 화폐개혁을 단

8) 대북사업자 000, 2010. 4. 25, 중국 심양에서 면담.

9)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앞의 글, p. 35, p. 76, p. 95.

행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생활이 나아지지기보다는 더 악화되는 데 대해 국가를 원망, 비난

- “돈 단위를 낮추고 쌀 가격을 낮추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취한 조치”라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고 비난
- 화폐개혁 조치는 특히 상당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던 중산층의 주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로써 중산층의 주민들 사이에 국가와 당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

○ 화폐개혁 조치로 인해 생활이 더 어려워진 데 대해 북한주민들은 특히 간부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탓하며 간부들이 인민들의 생활고를 파악할 수 없도록 최고지도자의 눈을 가리는 행태를 일삼는다고 비난함.

- 북한주민들 사이에는 생계유지를 위한 사경제활동에서의 비사회주의적 행위, 또는 사회·조직 이탈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무마하기 위해 간부들에게 뇌물(돈)을 상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이로써 북한주민들은 간부들을 부정부패한 사람들로 인식
- 화폐개혁 이후 중간 간부들과 보안원들에 대한 비난이 보다 격화되었으며¹⁰⁾ 북한주민들은 간부들이 화폐개혁 단행을 미리 알고 외화로 교환했다고도 비난

○ 북한당국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라고 하여 주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있으나, 북한주민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음.

10) 대북사업자 000, 2010. 4. 22, 중국 단둥에서 면담.

- 주민들은 식량부족, 빈부격차 심화 등 화폐개혁 이후의 상황이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안 좋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와 관련하여 비관적으로 전망
- 당·국가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불신과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통일에 대한 소망으로 표출되기도 하는 바, 전쟁을 통해서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서 나라에 변화가 있고 생활이 나아졌으면 하는 막연한 소망을 갖고 있음.
 - 북한주민들의 일부는 평화적 방법이 아닌 전쟁을 통해서만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북한은 통일을 원하는데 통일을 반대하는 남한과 미국 때문에 북한이 잘 살 수 없으므로 어쩔 수없이 전쟁을 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인식¹¹⁾
 - 북한주민들은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아주 못 사는 나라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아주 강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전쟁을 통해서라도 생활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대¹²⁾
- 당과 국가에 대한 불만, 체제에 대한 반감 내지 회의는 장마당을 통해서, 또는 남한 영화·드라마 DVD, CD, USB, 휴대전화(보급률 1%: 30만 대), 대북전단(삐라), 대북방송, 탈북자 등의 매체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됨.¹³⁾
 - 2009년 10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지품 조사 결과, 1만8천 명의 학생들 가운데 2천 여 명에게서 대북용 영상물이 든 CD와 USB가 발견¹⁴⁾

11) 북한이탈주민 000, 2010. 5. 7, 서울에서 면접.

12) 북한이탈주민 000, 2010. 4. 6, 서울에서 면접.

13) 장철현(북한이탈주민), “북한주민의 알 권리 침해 실상과 방안: 증언,” 국가인권위원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앞의 글, p. 9.

-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당·국가에 대해 불신과 원망을 갖게 하는 주요인들은 세 부담, 간부들의 부정·부패와 비리, 남한·중국을 비롯한 외국에 대한 인지도 증가, 경제난에 따른 생활고와 빈부격차 심화,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자긍심 약화 등으로 집약됨.

2.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반감 확산, 심화

- 정치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의식은 소극적·수동적이며 정치에 대해 무관심한 편이었으나 경제난이 지속됨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 정치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식이 형성, 확산되었으며 화폐개혁 이후 보다 강화되어 가고 있음.
- 경제난 이후 북한주민들은 김정일 정권의 정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김일성 통치 때와 김정일 시대의 생활 형편 비교, 김정일 시대부터 악화된 북한 경제 상황과 주민의 생활고, 간부에 대한 비난 등 정부와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반감을 토로함.

14) 김홍광(NK지식인연대), “북한사회와 주민의식의 역동적인 변화실태와 활성화 방안,” 국가인권위원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위의 글, p. 25; 대북영상물이란 외부세계에서 제작되어 북한내부로 보급되는 디지털영상정보들을 말하며 현재 북한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것으로는 영화·드라마(CD, DVD, TAPE, USB), 다큐·교양시사물(CD, DVD, TAPE, USB), 음반·뮤직비디오(CD, DVD), 전자도서(E-book), USB, CD, DVD), 만화·애니메이션(CD, DVD, USB), 게임·학습프로그램(USB, CD, DVD) 등이 있으며 컴퓨터를 활용하여 할 수 있는 E-book과 애니메이션, 만화 작품을 보는 것이 지식계층과 청소년, 대학생들의 큰 흥밋거리라고 함. 위의 글, p. 23.

- 김일성 가계의 권력세습으로 인해 경제난이 심화되고 주민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부 주민들 사이에 권력 세습에 대한 반감도 형성되고 있는 바, 이들은 남한방송을 듣고 보면서 다당제, 대통령 선거제 등에 대해 알게 되고, 이로써 대를 이은 권력세습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다고 함.
- 화폐개혁 조치 이후 정부와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보다 더 강화되었으며 주민들은 김정일 정권의 정치를 일컬어 “못살 정치”라고 비판하며 정권교체를 기대하기도 함.
 - “주민들을 살리는 정권은 아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없으니 사람들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¹⁵⁾
 - “정부가 어떻게 해야 뒤집어지겠는가,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¹⁶⁾
 - 김정일은 “자기 권력과 자기 체제 유지밖에 모르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사람”¹⁷⁾
-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김정은 후계구도에 대한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후계자, 또는 후계체제에 대해 기대도 관심도 없으며 오직 생계유지에 급급한 실정임.
 - 정치를 누가 하던지 간에 주민 생활은 달라질 것이 없으며 정부는 주민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불평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정치, 또는 후계자 김정은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다는 것¹⁸⁾

15)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앞의 글, p. 141.

16) 위의 글, p. 83.

17) 위의 글, p. 132.

18) 위의 글.

3. 개방에 대한 기대 및 요구 확산

- 국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지고 중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감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 중국식 개방에 대한 기대 및 요구가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화폐개혁’ 조치 이후 보다 더 심화, 가속화되어 가는 추세임.
 - 국가 경제 회생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사상은 고수하되 중국처럼 개혁·개방하여 경제는 자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 주민들 사이에 북한도 머지않아 개방할 것 같다는 전망과 2012년 ‘강성대국’이 문을 여는 해에 개혁·개방이 이루어질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확산¹⁹⁾

19) 위의 글, p. 55, p. 109.

IV.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 등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의 사회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요인으로는 남한 및 중국변화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지도 증가, 빈부격차 체감 및 간부들의 부정 부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증대, 사회주의제도 및 지도자에 대한 불신 등 체제자긍심 약화 등으로 집약됨.

- 북한에 컴퓨터, 비디오, 휴대폰, MP3, USB와 같은 기기들이 도입되면서 체제 폐쇄성이 약화되는 추세이며 인터넷(내부 네트워크) 채팅, 휴대폰, MP3, USB를 통해 주민들 상호간 소통 문화가 형성되고 한류가 유행하고 있음.²⁰⁾

- 화폐개혁 조치 이후 주민의식 변화가 보다 심화, 확산됨에 따라 북한당국의 주민통제가 크게 강화되었는바, 특히 남한 영화·드라마를 비롯해 서구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차단, 단속하기 위해 2010년 1월 30일, ‘130상무’를 조직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함.²¹⁾
 - 평안남도 개천에 위치한 ‘개천교화소’의 총수용인원 3,000명 가운데 1,000명 이상이 한국 영화·드라마 시청 건으로 복역중
 - ‘130상무’의 단속 대상은 일반주민뿐만 아니라 간부들에게까지 확대
 - 2010년 5월 중순, 평안남도 평성시 구월동에서 비밀지하교회를 운영하던 23명의 북한주민이 보위부에 적발, 체포²²⁾

20) 장철현(북한이탈주민), 앞의 글, p. 8.

21) 『NK 지식인연대』, 2010. 12. 6.

22) 『NK 지식인연대』, 2010. 9. 13.

- 식량난 등 경제난이 해소되지 않는 한 북한주민들의 합법·불법적인 중국 왕래가 계속되고 중국왕래자가 많을수록 주민의식 변화가 보다 빠르게 확산될 것이며, 이로써 북한주민들의 민심이반과 체제 동요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은 북한당국의 감시, 통제로 주민 폭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
 - 북한주민들이 외국 라디오 청취로 얻고 싶어 하는 정보들 가운데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은 북한 뉴스(32%), 남한 뉴스(28%) 등임.²³⁾

- 최근 중동, 아프리카지역에서 발생, 확산되고 있는 ‘재스민 혁명’의 여파로 북한주민들 사이에 인류 보편적 개념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형성, 확산될 개연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바, 이를 상정한 관련 대책 수립이 필요함.
 - 보편적 개념의 인권의식 형성 및 확산은 중·장기적으로 주체사상, 선군사상 등 통치이데올로기의 무력화를 초래

-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개혁 조치 이후에도 경제난이 악화됨에 따라 돌발적인 ‘생계형 시위’가 발생하는 등 사회불안정성이 보다 고조되고 있으며 사회불안정을 야기하는 주요인들도 악화되기보다는 더 강화되는 추세임.
 - 양적·질적으로 크게 낮아진 국가로부터의 수혜,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간부들의 부정·부패와 비리 등으로 인해 형성된 상대적 박탈감이 화폐개혁 이후 보다 더 커졌으며, 이로써 북한주민들 사이에 당·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저항의식이 보다 더 심화, 확산

23) 하태경, 앞의 글, p. 61.

- 간부에 대한 불만 및 빈부격차에 대한 체감은 매우 심각한 정도이며 사회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
- 특히 수령일인체제인 북한에서 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사회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때,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 사이에 확산, 고조되고 있는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반감은 사회불안정성을 보다 높일 것으로 전망됨.
- 경제난이 심화, 지속됨에 따라 당·국가로부터 신임을 받고 특혜를 누리려는 이른바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는 주민들 사이에도 의식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바, 이러한 현상은 김정일 정권의 기반 약화 내지 체제 동요의 확산을 시사하고 있음.
 - 간부 및 중산층 가정들에서 남한 영화·드라마 시청율이 높은 편²⁴⁾
- 북한체제가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거나 그것을 의식하는 체제는 아니지만 향후 김정은의 3대세습과 후계체제 안착에도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당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의존도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안착하는 데 필요한 지방당과 각 단위 세포 조직의 기능 복원이 어려워질 가능성

24) 김영호(북한이탈주민), 앞의 글, p. 4.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 화폐개혁 이후를 중심으로 -

통일정세분석 2011-05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전화 : 02-901-2525 팩스 : 02-901-2544
인쇄처	(주)세원문화사 전화 : 02-2265-1141
인쇄일	2011년 3월
발행일	2011년 3월

K O R E A I N S T I T U T E F O R N A T I O N A L U N I F I C A T I O N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 900-4300(代)